

전북 건설업계 실무 역량 높인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국토부 불법하도급 상시단속 업무 설명회 가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도내 건설업체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응 교육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7일 전주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도내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및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상시단속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정부가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상시단속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회원사들이 변경된 점검 기준과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7일 전주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도내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및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상시단속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마련됐다. 협회는 단속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달청 관계자가

입찰자격 사실조사의 주요 점검 사항과 관련 서류 준비 요령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불법하도급 상시단속의 주요 적발 사례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하도급 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실제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재철 회장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는 만큼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권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 설명회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 임직원의 실무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 신촌4길 일대 '만국기 거리' 조성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중화산동 신촌상가번영회와 상생 프로젝트 추진

첨제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신촌상가번영회와 손잡고 이색적인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길

환)는 지난 6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신촌4길 일대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만국기 거리 조성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 골목상권으로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거리 곳곳에 형형색색의 만국기를 설치해 상권에 활기찬 분위기를 더했다.

행사는 정명례 요식업조합 완산지 부장과 강력한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유정명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 신촌상가번영회 회원 등 지역 상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뜻을 함께했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 수출바우처 3차 참여기업 모집

고환을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마지막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수출 기반 유지를 위해 7월 8일부터 수출바우처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원자재 수입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출을 해도 실제 남는 이익이 줄어드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70억 원을 투입해 약 1,200개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기존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가운데 고환을 피해가 확인된 기업에는 추가 지원 한도를 부여해 현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수출기업의 위험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해 환율 변동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기존 수출계약의 안정적인 이행과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수출 확대보다 기존 거래처 유지와 손실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감소를 막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오상근 기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카본코리아' 참가기업 모집

국내 최대 탄소산업 전문 전시회인 '카본코리아 2026(Carbon Korea 2026)'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참가기업 모집에 나섰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김용만)은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마곡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카본코리아 2026'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카본코리아는 탄소섬유와 활성탄, 그라핀 등 첨단 탄소소재와 응용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국내 대표 탄소산업 전문 전시·컨퍼런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탄소노산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가 후원한다.

올해 행사는 'AI와 함께하는 탄소소재의 미래: 우주·항공·방산, 에너지

를 주제로 열린다. 인공지능(AI) 기술과 탄소소재 산업의 융합 가능성을 조명하고, 우주항공과 방산,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의 협력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탄소소재와 응용제품 전시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 소재기업과 수요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B2B), 해외 바이어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참가기업들은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 및 신규 판로 개척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전시 장소를 코엑스 마곡으로 옮겨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 간 기술 교류와 비즈니스 상담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오상근 기자

상추 수경재배, 양액 이온 균형 중요

농촌진흥청 "전기전도도 수치뿐 아니라 개별 이온 관리해야"

여름철 상추를 순수 수경재배 방식으로 키울 경우 양액 속 이온 균형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순수 수경재배 가운데 양액을 반복해 사용하는 박막경(NFT)과 분무경 재배 방식에서 양액 내 이온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상추의 수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순수 수경재배는 토양이나 인공 배지를 사용하지 않고 양분이 녹아 있는 양액만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작물 뿌리에 물과 양분을 직접 공급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고 물과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농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양액을 두 작기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면 재사용 양액과 새 양액을 전기전도도(EC) 농도만 맞춘 뒤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양액 내 이온 구성의 균형이 무너지면 작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농촌진흥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5월부터 8월까지 상추 순수 수경재배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5~6월의 1작기에서는 수량과 품질이 양호했지만 6~8월에 양액을 재사용한 2작기 이상에서는 수확량이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액 내 이온 균형이 무너지면 상추 등 잎채소에서 잎끝마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농촌진흥청은 고품질 상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기전도도와 수소이온농도(pH)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주요 이온의 농도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부족한 성분을 적절히 보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순환 양액의 분석 결과와 작물 생육 상태를 함께 확인하며 관리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제공하는 상추 표준 양액 조성 기준을 참고해 양액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TP, 우즈베키스탄과 친환경 농기계 협력 강화

전북테크노파크(전북TP)가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친환경 농기계 보급과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며 양국 간 산업협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TP는 7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친환경(CNG) 농기계 보급지원사업'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 친환경(CNG) 농기계 보급지원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에너지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분야에 친환경 농기계를 개발·보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을 맡고 있으며, 전북TP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주)아그로솔루션코리아,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협력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은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전북TP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연수에는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혁신부와 자동차공업성 관계자 등 6명이 참가해 한국의 친환경 농기계 기술과 산업 기반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전북과 익산, 서울 등 주요 거점을 방문해 농기계 보급 현황을 점검하고 농기계 제조공장과 기업을 견학한다. 또한 필드 테스트 장비와 기자재를 확인하고 친환경 농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